

##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가지 눈: 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sup>\*1)</sup>

**권숙인**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의 일본문화연구를 비교 검토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하면서 일본연구에 어느 다른 학자들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인식론·방법론적으로 매우 상이하여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개의 다른 눈(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한 텍스트는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나카네의 『일본사회의 인간관계』, 필드의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이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론·방법론적 차이와 관련해, 베네딕트는 미국 문화인류학 전통, 특히 '문화와 인성' 학파을 이끌었던 학자로 주로 일본인들의 행위를 특징짓는 심리적 동인에 관심을 가졌다. 반면 나카네는 영국 사회인류학 전통에서 훈련받았으며, 보다 사회학적인 '구조'와 '관계망'을 주요 개념들로 사용하고 있다. 필드는 문학에서 출발하여 '문화연구'로 관심이 확대된 경우로, 개인사나 소수의 심층적 사례로 전체 사회를 조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베네딕트와 나카네의 핵심개념인 '유형'과 '구조'에 기초한 분석에선 개인의 자율성이 개입될 공간이 거의 없다. '실천'과 '행위자'를 중시하는 노마 필드는 반대로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통해 일본사회의 구조적 힘의 성격과 행사방식을 드러낸다. 셋째, 세 관점의 상대적 설명력과 관련해선, 흔히 이야기되는 일본적 집단주의의 설명에는 나카네의 분석틀이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베네딕트는 일본인의 '에토스', 즉 정서적 동기화, 세계관, 가치관, 규범적 강제 등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하고 있다. 반면 양자 모두 개인적 행위의 원인, 특히 집단적 기대나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설명하기 힘들며, 이 부분에선 노마 필드의 관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 주제어: 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 일본문화연구

### I. 들어가기

본 연구에서는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나카네 지에(中根千枝), 노마 필드(Norma Field)의 일본문화연구를 비교 검토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하면서 일본문화 연구에 어느 다른 학자들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이들의 연구는 인식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매우 상이하여 일본문화를 보는 '세 개의 다른 눈(관점)'을 대표한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학계나 일반 독서계에서도 이들의 저작이 번역되어 상당히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

\* 이 연구는 2001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성하고 있으며, 일본문화를 접근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들의 연구는 서로 분리되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세 학자의 연구를 비교하여 그 인식론·방법론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각 관점이 제공하는 ‘눈’(perspectives)을 상대화시키고자 한다. 세 학자의 연구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검토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아직 이들의 텍스트에 대한 상호비교나 면밀한 분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에서 일본학 교육과 연구에 이들의 연구를 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교 분석하게 될 텍스트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나카네 지에의 『일본사회의 인간관계』, 노마 필드의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이다. 이 책들이 나온 시기는 각각 1946년, 1967년, 1991년으로 서로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 『국화와 칼』이나 『일본사회의 인간관계』는 매우 잘 알려진, 일본문화연구에 있어 ‘고전’이라 할만한 책이다.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후 일본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저작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루스 베네딕트,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의 인식론·방법론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문화의 작용원리에 대해서, 특히 인간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고전적인 질문인 ‘개인과 문화/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세 관점이 갖는 설명력의 차이는 무엇인가? 즉, 일본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 대해 루스 베네딕트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카네 지에나 노마 필드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넷째, 루스 베네딕트와 나카네 지에, 노마 필드의 일본사회에 대한 전망과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II. 『국화와 칼』과 일본문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sup>1)</sup>은 일본문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고전’의 하나로 꼽힌다. 이 책이 고전이라 불리는 것은 일본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들, 특히 일본인들의 에토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최초로 명확하게 분석해냄으로써 차후 일본문화를 분석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준거(reference)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인들의 위계 의식, 수치와 명예 관념, “기리”(義理), “닌죠”(人情), “온”(恩) 등의 개념에 대한 베네딕트의 분석은 이 책 이후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분석적 도구가 되었으며, 베네딕트 이전에 제기되지 않던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시도할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 차후 일본연구에 하나의 뚜렷

1) 원서의 서지 사항은 Benedict, Ruth.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Houghton and Mifflin.

한 방향성을 제공하였으며, 그런 면에서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만하다.

『국화와 칼』은 비단 학자들의 일본연구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일본 내외에서 일반인들이 일본문화를 바라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46년 미국에서 출간된 직후 일본어로 번역되었는데, 일본어판은 현재까지 100쇄 이상 인쇄되고, 2백3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초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Kent, 2000: 80). 보통의 일본인들이 자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를 이 되어 온 셈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책 중의 하나가 『국화와 칼』이며, 나름대로 일본문화에 대해 견해가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화와 칼』에 나오는 주제의 ‘변주곡’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학계 내외에서 일본문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결정적인 ‘눈’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문화에 대해 『국화와 칼』이 제공하는 눈은 ‘하나의 눈’이지 전지전능한 눈은 아니다. 그것이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가려지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는 『국화와 칼』이 갖는 ‘고전’으로서의 위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 1. 『국화와 칼』의 정치적 맥락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는 일본전문가는 아니었다. 일본연구를 시작할 당시 이미 명망 있는 인류학자였지만 그것은 그녀가 1934년에 출간한 『문화의 유형』<sup>2)</sup>이란 책 때문이었다. 북미의 대표적인 인디언 부족인 콰큐틀, 프에블로, 도부족에 대한 비교연구서인 이 책에서 베네딕트는, 각각의 문화가 어떤 통합된 ‘틀,’ 혹은 ‘유형’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책은 문학적 유려함과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로 인해 인류학계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베네딕트가 제시한 “디오니소스형”, “아폴로형” 문화 개념은 학계 내외에서 널리 인용되었다. 이렇게 주로 북미 원주민들을 연구하던 베네딕트가 일본을 연구하게 된 것은 1944년 6월 미 국무성의 의뢰 때문이었다. 이차대전 때까지만 해도 미국학계에서 일본은 큰 관심대상이 아니었으며 일본전문가도 극히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타문화 연구로 명망 높은 베네딕트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베네딕트의 일본연구는 미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 프로젝트’로 출발한 셈이다. 그렇다면 당시 미 국무성은 왜 이런 연구를 의뢰하였을까? 1944년 6월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되, 결말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시점이었다. 미 정부의 관심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지, 전쟁이 끝나면 대일 점령정책

2) Benedict, Ruth. 1934. *Patterns of Culture*. New York: Houghton Mifflin.

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모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인류학자에게 구하고자 하였던 것은 전쟁을 통해 적국(敵國)으로서 일본에 대해 느꼈던 ‘낯설음’ 때문이었다.

베네딕트가 책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은 미국에게 “가장 낯선 적”이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이 취하는 전시행동이 서구의 ‘상식적인’ 관행과 관념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미 없는 죽음(소위 ‘개죽음’)이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 서구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일본 병사들은 “죽창만 가지고 끝까지 싸우리라”란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대개 무항복주의로 일관했다. 아울러, 전쟁의 승패를 정신력 문제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객관적 전세 분석을 강조하는 미국인들에게는 ‘불가사의’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은 점점 종결점이 보이는 듯 했고, 미국의 정체결정자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예컨대, “일본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일본 본토에 진격하지 않고도 항복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천황의 궁성을 폭격해야 하는가? 대일 선전(宣傳)이 필요할 경우 어떤 말을 써야만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며,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려는 일본인들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이었다.

다시 말해 베네딕트는 지극히 정치적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화와 칼』이 순전히 ‘정치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베네딕트는 인류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로 일본문화를 분석해 나간다. 특히 이 점은 베네딕트의 스승이자 20세기 초 미국인류학을 이끌었던 프란츠 보아즈(Franz Boas)의 반인종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Dower, 1986). 즉, 미국인들이 “낯선 적”으로서 일본인들에 대해 자칫 인종적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일본인의 행동방식과 가치관을 일본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sup>3)</sup>. 책의 서두에 베네딕트가 자신이 연구과제에 임하는 자세(문화상대주의)를 논하고 있는 부분은 비장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지하다.

---

3) 태평양전쟁을 통해 동원된 미국의 인종주의적 태도와 ‘지식’에 대한 분석에서 존 다워(John Dower, 1986: 118-119)는 당시 전쟁목적에 참가했던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군사작전과 종전후 장기적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적국 국민의 행동방식을 분석하도록 주문 받았는데, 이러한 작업은 학자들에게 이론을 강의실로부터 끄집어내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흥분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고귀한 명분”도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전쟁의 종결을 앞당기고, 전쟁이 끝난 뒤 보다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데 초석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 2. 문화상대주의와 타자화 사이에서

그러나 문화상대주의와 반인종주의라는 학문적·정치적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트의 분석은 부지불식간에 ‘인종주의적’ 인식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결국 베네딕트 앞에 제시된 ‘연구과제’는 지극히 ‘타자화’된 대상으로서의 일본인과 일본문화였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비서구 소규모 사회를 주로 연구했던 전통적인 인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가사의한 일본’을 ‘이해 가능한 일본’으로 만들고자 한 베네딕트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그것은 문화상대주의와 타자화 사이의 경계를 불안하게 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차이’로서의 일본문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문화와 대비되는 일본문화의 특징들이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자아(self)에 비추어 본, 미국이라는 자아와 대립되는 타자(other)로서의 일본문화이다. 텍스트 상에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해 볼 때 베네딕트는 문화상대주의란 기본 원칙에 지극히 충실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베네딕트는 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며 분석을 하는 작업은 “정신의 개인함과 관용성을 함께 필요로 하는”(김윤식·오인석 역, 1991: 19) 것이라며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녀가 강조한 것들이 미국이란 거울에 비춰 본 일본의 차이인 까닭에 일본문화가 일방적으로 대상화되고 타자화 되어 버리는 느낌을 받기 쉽다. 서구 중심적이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물론 저명한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1988)는, 베네딕트가 강조한 차이는 오히려 미국문화를 해체하는 효과를 하고 있다고 읽어내지만 말이다.

또 하나, 요시오 스기모토(Yoshio Sugimoto, 2000)가 지적하듯이 문화상대주의가 일본에 적용될 때는 국민성(nationality), 종족성(ethnicity), 문화(culture)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문화상대주의자들이 서구에 대해 일본문화의 코드를 존중하라고 주문할 때, 이들이 언급하는 일본문화는 종족적 소수자들의 문화가 아님은 분명하다. 즉, 문화상대주의의 애초 의도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종주의와 대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와 종족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인종주의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국화와 칼』은 일본인들을 비역사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려냄으로써 일본문화를 일종의 ‘인종적 범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하고 있다.

## 3. 학문적 맥락: 베네딕트의 문화관

인류학자는 흔히 문화를 연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서로 매우 상이한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 문화가 갖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베네딕트

의 일본연구에는 당시 미국인류학계의 지배적인 관점들, 특히 베네딕트 본인의 학문적 관심과 성향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문화의 이해와 관련해 『국화와 칼』이 갖는 장·단점을 보다 분명히 해 줄 것이다. 베네딕트의 문화관은 ‘문화결정론’, ‘문화유형론’, ‘문화와 인성’으로 대표될 수 있다.

『국화와 칼』의 제1장은 베네딕트의 문화관과 방법론적 전제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우선 “문화결정론”적 입장은 사람들의 행위나 관행의 강제력으로서 문화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문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정치경제적 함의를 갖는지는 별로 고려되지 않으며, 대개 문화가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 사람들이 보이는 특정 성향은 선천적인 이유보다 태어나고 자란 문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일반적인 관찰에 비추어 보면 이런 입장은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분석적 입장으로서 문화결정론이 갖는 문제점은, 문화의 영향과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흔히 역사적 설명을 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종종 ‘문화론적 설명’에 대해 역사적 변화나 정치경제학적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지극히 신비주의적 설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쿠가와 체제가 붕괴되고 메이지유신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대한 베네딕트의 ‘문화론적’ 설명은 일본역사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또한 문화결정론적 입장은 최근 인문사회과학에서 강조되는 입장, 즉 행위 주체들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문화를 보고자 하는 입장과도 대립된다.

베네딕트의 문화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유형(pattern)”이란 개념이다. 앞서 베네딕트의 초기 저작 『문화의 유형』과 관련해 언급한 것처럼, 베네딕트의 중요한 학문적 관심의 하나는 개개의 문화요소가 어떤 종합적인 유형을 구성하는가 이었다. 그녀 자신의 말을 빌자면, “문화인류학자로서 나는 어떤 고립된 행동도 서로 어떤 체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는 수백 개의 개개의 일들이 어떤 종합적 유형으로 분류되는가에 주목했다. … 그 때문에 경제적 행동, 가족 조직, 종교적 의식, 정치적 목적 등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된다”(김윤식·오인석 역, 1991: 16-17)는 것이다. 마치 『문화의 유형』에서 주니 인디언의 일상생활, 의례, 정치조직, 인간관계 등이 온화하고 조화로운 세계관으로 통합(베네딕트는 이를 “아폴로형” 문화유형으로 분류했다)되어 있듯이 일본문화도 그 구성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유형을 지닌 것으로 간주했다. 실제 『국화와 칼』의 부제는 “일본문화의 유형들”(patterns of Japanese culture)이다. 유형이란 한 문화를 특징짓는 전체적인 설계나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음악작품의 기본 주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변화, 지역적 변이, 계층적 차이 등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며 이점은 베네딕트에 대한 비판에 있어 핵심적 쟁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문화와 인성 학파”(culture and personality school)이다<sup>4)</sup>. 이것은 베네딕트가 활동하던 당시 미국인류학의 주요 학파 중 하나였으며, 베네딕트는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 등과 더불어 상이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인성의 차이에 관심을 가졌다. 즉 인성이란 생득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문화에 의해 영향받고 주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결정론적인 인과들이 설정된다. 각각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인성적 변이의 원인으로 문화가 설정되는 것이다. 분석적인 초점은 어린이의 양육방식이다. 어린이의 양육과정을 통해 한 문화의 주요 원리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며 결과적으로 각각의 문화에 특수한 인성적 자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국화와 칼』의 제12장 「어린이는 배운다」는 이런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일본을 일본인의 나라이게끔 하는 과정, 일본문화가 재생산되는 기제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 4. 『국화와 칼』 읽기

『국화와 칼』은 출간 이후 여러 사람에게 ‘필독서’로 간주되어 온 만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우선 방법론상의 문제, 특히 자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문제시되어 왔다. 전시상황으로 인해 인류학적 연구방법의 핵심인 ‘현지조사’는 불가능했다. 인터뷰 대상이었던 일본인 전쟁포로나 미국내 일본인들이 과연 ‘자료’로서 얼마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심각하게 의문시되었다.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문제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인식론적 한계와 문제도 비판되었다. 특히 갈등이나 변이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는 전체론적 시각, 비역사적인 문화개념은 통렬한 비판을 받았다(예컨대 Lummis, 1982; Mouer and Sugimoto, 1986). 살펴보았듯이 베네딕트의 관심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상(‘유형’)으로서의 문화로, 이는 내적 균질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나 내적 차이가 배제된 본질론적 재현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에서 『국화와 칼』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보다 대중적인 글쓰기/읽기 장르인 ‘나혼진론(日本人論)’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소규모 단순사회(이 경우도 내적으로 결코 단일하거나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이 학계의 상식이지만)와 달리, 문자화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복합사회인 까닭에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화와 칼』의 가치는 이러한 결합의 지적에 의해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아오카 다모쓰(青木 保)의 견해에 필자도 동의한다. 그의 말대로, “무엇보다도 아직껏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모두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최경국

4) 주로 소규모 부족사회연구에서 출발한 ‘문화와 인성 연구’는 차후 국민국가 연구에도 적용되었으며(물론 대표적인 예가 『국화와 칼』이다), 한 국민의 공통적인 인성적 자질을 추출하게 되면서 ‘국민성 연구’로도 불리게 되었다.

역, 1997: 42)은 이 책이 갖는 중요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베네딕트는 그 때 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본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로 소규모 부족사회 연구에 적용해 오던 전체론적 접근을 일본처럼 큰 규모의 복합사회에 적용시키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와 무리는 이미 지적한대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론적 접근이 갖는 특유의 ‘유혹’을 인정한다면, 베네딕트가 이처럼 명쾌하게 일본문화를, 그것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념 등 보다 파악하기 힘든 측면을 분석해 낸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번도 일본에 가보지 못한 한 외국학자의 이 저작은 역설적으로 일본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한편 우리가 일본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베네딕트가 제공하는 시야의 상대적 가치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의 『국화와 칼』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가장 밝은 시야는, 주로 일본인들의 정신생활과 의식구조, 정조, 혹은 에토스라 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베네딕트의 관심이 주로 이런 면에 집중된 것은 그녀의 이론적 출발인 ‘유형’, 혹은 ‘계슈탈트’가 지극히 심리학적인 성격을 갖는 데서도 연유한다. 일본인들의 위계 의식, 은혜와 은혜 갚음이라는 도덕과 의무감, 수치의식, 인정, 성실함의 미덕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베네딕트를 살려 읽는다고 할 경우 베네딕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일본인들 사이에 넓게 편재해 있는 정조를 예리하게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개의 일본인들이 부여하는 ‘의미’나 구체적인 ‘실천’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 책에 묘사된 것을 수긍하거나 공감, 혹은 적어도 이해한다고 말한다. 마치 영화 <서편제>를 보면 각자 비판도 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 전반적인 미학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책은 일본인들의 세계관의 핵심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역사적·구조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앞서 언급한 메이지유신의 경우처럼)에서는 『국화와 칼』이 제시하는 렌즈는 매우 흐려지거나 하나의 맹점이 된다.

### III. 『일본사회의 인간관계』가 보여주는 일본의 사회구조

일본의 인류학자 나카네 지에를 유명하게 만든 책인 『일본사회의 인간관계』<sup>5)</sup>도 일본의 사회문화를 설명하는 ‘고전적’ 틀의 하나이다. 이 책은 1967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후 1970년 *Japanese Society*<sup>6)</sup>란 제목으로 영어권에도 소

5) 中根千枝. 1967. 『タテ社会の人間關係: 單一社會の理論』. 講談社.

개되면서 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까지도 인쇄가 거듭되면서 일본내외에서 『국화와 칼』 못지 않은 초 장기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출간이래 ‘종직 사회’ 혹은 ‘vertical society’라는 개념은 일본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며 일본사회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나카네 지에는 일본사회에서 대인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작용하는 중요한 원칙들,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나타나는 구조적 원리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 스스로 일본의 “사회구조에 대한 탐구”라고 밝힌 이 저서에서 나카네 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원리 - “장(場; frame)의 원리”, “수직적 통합”, “단일한 성원권”, “집단에의 전면적 참가”, “우리’와 ‘남’에 대한 엄격한 구분”, “경쟁과 평화” 등 - 를 통해 일본인들의 인간관계와 집단이 갖는 비교문화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특히 나카네 지에의 연구는 소위 ‘일본적 집단주의’의 기본 원리를 명쾌하게 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본의 가족제도, 기업문화 등의 연구에 폭넓게 원용되었다. 아울러 일본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선명하게 밝혔다는 찬사와 함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국화와 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사회의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눈’을 상대화시켜 보도록 한다.

### 1. 연구과제: 사회구조의 탐구

나카네 지에(1926~)는 사회인류학자이다. 현대 인류학을 이끌어 왔던 영국과 미국의 인류학은 현재는 그 차이가 과거처럼 두드러지지 않지만, 적어도 루스 베네딕트가 활동하고 나카네 지에가 교육받던 때만 하여도 각각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으로 불리며 뚜렷한 지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략적으로 말해 20세기 초 미국의 문화인류학은, 마치 루스 베네딕트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집단의 총체적인 관행과 관습을 ‘문화’라 부르고 이를 충실히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의 사회인류학은 콩트나 뒤르케임에서 이어지는 대륙의 사회학적 전통과 깊은 관련 속에 사회조직, 체계, 개인과 집단의 구조적 원리 및 사회제도체의 기능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나카네 지에가 동경대를 졸업한 후 영국 사회인류학의 중요 산실 중의 하나인 런던대학에서 수학한 점은 그녀의 학문적 지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똑같이 인류학자로서 일본을 연구하면서도 베네딕트와 출발점이 매우 달랐음을 암시해준다.

나카네 지에의 출발점은 그녀 스스로 ‘서론’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 ‘사회구조’의 탐구이다. 물론 여기서 사회구조는 사회인류학 전통에서 말하는 사회구조

---

6) Nakane, Chie. 1970. *Japanese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관계의 구조적 원리’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근거로 추출될 수 있는 것이며, 일본사회의 핵심적인 구조적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나카네 지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것은 “추상도가 매우 높은 이론화” 작업을 의미한다. 동시에 ‘유형’을 추구한 베네딕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율성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음을 예시한다.

## 2. ‘긍정적 특수성의 인식’과 부정적 전망 사이에서

‘니혼진론’에 대한 종합적인 비평을 시도하면서 아오키 다모쓰는 나카네 지에를 “긍정적 특수성의 인식”的 대표 주자로 포함시키고 있지만(최경국 역, 1997), 일본사회에 대한 나카네 지에의 태도와 평가는 좀 더 복잡한 것 같다.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일본사회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선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나카네 지에는 ‘장’에 의해 구성되는 ‘종적사회’의 특징이 “비판정신의 결여”, “계약정신의 부재”, “파벌의 필연성”, “배타성과 촌티”, “지나친 서열의식”, “과도한 경쟁”, “부당한 평등주의”, “집단주의적 억압성”, “논리보다는 감정” 등 여러 부작용을 넣게 된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단점이 일본사회의 저변에 있는 구조적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당 정도 ‘필연성’을 떤다. 즉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제 요소 중 가장 변화하기 힘들”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들은 개선될 가능성은 적다.

나카네 지에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곳은 단 한군데이다. 그것은 종적사회 특유의 신속한 명령하달과 일치단결의 조직력이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오키 다모쓰가 위의 평가를 내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나카네 지에는 효율적인 조직력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고 있다. 이상적으로 기능했을 때 이런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만 역으로 군국주의적 목적에 쉽게 동원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아오키 다모쓰가 ‘긍정적 특수성의 인식’의 대표 예로 나카네 지에를 거론한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 필자가 보기엔 나카네 지에는 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본문화 긍정’을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나카네 지에가 자신의 작업을 ‘기모노 재단’에 비유하는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서구의 이론으로 일본사회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센티 자로 일본고유의 기모노를 재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플러스 알파”)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일본사회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선 “고유의 이론틀”이 필요하며, 사회구조에 대한 자신의 탐구는 바로 이런 시도라는 것이다. ‘근대화론’의 지나친 ‘횡포’를 암묵적으로 전제한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면서도 일면 아주 익숙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카네 지에 자신이 그 핵심 멤버로 간주되는 ‘니혼진론’

자’(日本人論者)의 이념적 지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나혼진론자’는 물론 전반적으로 나카네 지에보다 훨씬 대중적 성격을 띠지만, 많은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일본문화의 독특성 및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개념과 이론의 필요성이었다. 거기에는 종종 일본문화의 정체(identity)에 대한 관심 외에도, 독특한 일본문화가 갖는 우월성과 그것을 고유의 개념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고유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나카네 지에의 해석에도 관통하고 있다. 즉 일본사회의 여러 특징들이 그 “고유의 논리”에 의해 서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루스 베네딕트가 문화상대주의를 힘주어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카네 지에도 일본사회의 특질들이 일정한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것들은 ‘장의 사회’와 ‘단일사회’로부터 논리적이고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지역적이고 상대적인 합리성을 가진다는 결론이 유추될 수 있다. 실제로 그녀의 해석에선 이런 ‘상대적 합리성’ 주장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종족인 인간관계나 능력차이를 무시한 연공서열제가 (특히 서구인들에겐)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적 인간관계의 틀 속에선 오히려 친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집단에 대한 확실한 귀속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나카네 지에는 전반적으로 일본사회에 대해 양가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구인들의 의심 섞인 시선에 대해 일본적 관행이 갖는 ‘합리성’과 궁정적 결과를 보이고 싶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본사회 속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양가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태도는 위에 살펴본 베네딕트의 이념적 지향과 그 결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가성과 흥미롭게 비교될 수도 있다. 나카네 지에가 실제 그녀 자신이 했던 평가 이상으로 일본社会의 특질에 궁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녀가 제시한 원리들이 차후 다른 학자들에게 원용되면서<sup>7)</sup> 일본의 “궁정적 특수성”으로 해석된 사실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 3. 『일본사회의 인간관계』 읽기

언급했듯이 『일본사회의 인간관계』는 소위 ‘일본적 집단주의’의 구조적 원리를 명쾌하게 분석해 낸 것으로 찬사를 받았다. 일본사회에서 “장(場)” 혹은 “테두리”의 중요성은 일본의 전통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에(家) 집단이나 촌락조직의 결속뿐만 아니라, 근대적 조직의 대표격인 기업내의 구조적 원리와 인간관계, 정서적 유대, 충성심 등을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받아

---

7)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소위 ‘문화론적’ 설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들여졌다. 예를 들어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일본경영의 3보(三寶)’로 간주되어 온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별노조는 ‘장’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집단의 필연적 결과물로 산뜻하게 설명된다. ‘일본사회에서는 장이 무엇보다 중시된다’는 명제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가히 ‘문화론적’ 설명의 진수라 할만하다.

나카네 지에의 또 다른 중요 개념으로 “단일사회”, “종(縱; タテ) 조직” 등이 있다. 장에 의해 구성되는 일본의 사회집단은 개인의 전면적 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은 단일 집단에만 귀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집단은 오직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에 의해 조직되는 집단의 작위성 때문에 집단 내부의 구성원을 강력하게 묶을 필요성에서 ‘종적 조직’이 발달하게 된다. ‘오야붕·꼬붕’ 관계, 관료조직 등이 대표적 예이다. 종적 원리는 차이와 서열화를 공고히 하여 능력주의가 맥을 못추게 만들고 합리적 토론과 비판을 제한한다. 집단 외적으로는 “종단적 충화”를 가져와 병립하는 자 사이에 투쟁과 경쟁이 생겨난다. 기업별 노조가 생겨나는 연유이다. 종적 조직은 또한 어떤 보편적인 자격이 아니라 기존의 특정 구성원과의 관계에 의해 새로운 성원을 충원한다. 결과적으로 집단 내부에선 파벌과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당 내의 파벌이나 예능계 이에모토의 내부 알력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이 점은 집단 리더십을 크게 제약한다. 그 결과 모든 맥락에서 인간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관계가 되며, 이는 일본사회를 “이론적, 종교적이 아닌 도덕적 사회”로 만든다고 나카네 지에는 말한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적 강제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관을 갖게 된다. 여기서 나카네 지에가 말하는 “(상대성이 지배하는) 도덕적 사회”는 베네딕트가 말하는 “수치의 문화”와 정확히 일치한다<sup>8)</sup>.

나카네 지에의 분석은 여러 면에서 비판되어 왔다. 우선, “종적 인간관계”가 일본사회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틀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 이런 갈래의 비판의 대표적 예가 요네야마 토시나오(米山俊直, 1976)로, 그는 전통 일본사회와 현대화된 맥락에서 작동하는 “횡(横)적 인간관계”를 분석하며 나카네 지에의 수직사회에 비판을 제기하였다. 특히 농업과 대가족제도를 발달시켜 온 관동지방과는 달리 관서지방은 상공업 중심의 문화로 ‘종적 이론’과 패를 달리하는 또 하나의 인간관계 유형을 발달시켜 왔다는 것이다. 관련된 비판은 나카네 지에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선택적이라는 점이다. 정치정당, 대기업, 이에모토(家元)조직, 이념형으로서 이에(家), 학계 등이 그것으로, 이를 ‘엘

8) 베네딕트는 일본사회에서 보이는 사회적 규범의 우위 혹은 ‘수치의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기대에 부응하는 인간’이 되느냐 ‘기대에 어긋나는 인간’이 되느냐는 것을 목적으로 진로를 정하여 세상 사람 일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 요구를 버린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알고’ 한없이 신중하고도 훌륭한 인간이다”(김윤식·오인석 역, 1991: 268).

리트’ 조직은 ‘보통’의 일본인들이 맷는 인간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나 집단에의 ‘충성심’이 중요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카네 지에의 분석은 ‘이념형’에 대한 탐구로, 실제 현실보다는 이념을, 비공식적 영역보다는 공식적 영역을, 소 전통보다는 대 전통을 다루고 있는 한계가 지적된다. 예를 들어 나카네 지에는 같은 이에 내의 인간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보다 중요하고, 이 때문에 소위 “딸보다 며느리”가 중시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과 ‘명분’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오히려 베네딕트가 말하는 ‘기리(義理)’와 ‘닌죠(人情)’의 갈등이 매우 빈번할 수 있다. 나카네 지에가 주장하는 “단일사회의 논리”라는 ‘이상형’에 대해서도 현실에선 집단에 대한 충성이 다수이거나 서로 상충할 수 있다. 아울러 나카네 지에 분석틀이 갖는 비역사성은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는 일본사회를 제대로 설명하기엔 심각한 한계가 있음도 지적된다<sup>9)</sup>.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어느 쪽이 일본사회에서 더 중요한가’ 하는 상대적 중요성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재현(represent)할 것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쟁점과 연결된다. 특히 일본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나카네 지에 분석틀에 대해 제기된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일본지역연구에선 전반적으로 다원주의적 접근이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되어 왔다. 베네딕트나 나카네 지에로 대표되는 ‘구조’나 ‘유형’, 혹은 ‘모델’을 추출하려는 전체론적 접근 대신, 개인적 이해관계와 집단적 이해관계 사이, 개인적 표현과 집단적 순응 사이엔 항상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상충하는 이해간의 협상과정, 구조와 규칙의 실천과정에 주목하는 연구경향이 뚜렷해 진 것이다<sup>10)</sup>. 나아가 이런 ‘새로운’ 연구에서는 집단의 통합, 조화와 합의를 중심으로 한 인식이 단순히 현실인식에 불충분하다는 차원을 넘어 지식권력적 차원도 갖는다고 비판되었다. 예를 들어 나카네 지에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전개해 온 마우어와 스기모토(Roger Mower and Yoshio Sugimoto, 1986), 베후(ハルミ ベフ, 1987; Befu, 2001) 등은 나카네 지에로 대표되는 일본사회의 ‘집단주의 모델’이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즉, 나카네 지에 자신이 의도와 상관없이 그녀의 이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면서 일본연구 전체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평가도 이런 맥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9) 예를 들어, 현대 일본사회에서 종족 집단과 다른 논리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의 결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선 문옥표(2002)를 참조할 수 있다.

10) 이러한 인식론적 태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선 권숙인(2000), 손 열(1998), Kelly(1991)를 참조할 수 있다.

#### IV.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와 세기말 일본

노마 필드의 책은<sup>11)</sup> 상대적으로 최근에 쓰여진 책이다. 『국화와 칼』과 『일본사회의 인간관계』가 일본사회의 ‘대 전통’과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점 상 일본문화를 본질화시키는 비역사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는 대 전통이 아닌 ‘소 전통’,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일본을 역사화 시킨다. 이 책은 합의에 근거한 사회(consensus society)라는 ‘통념’에 대해 끈질기게 질문을 제기하고 저항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나카네 지에가 말하는 집단주의가 갖는 정치성과 억압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앞의 두 책의 경우 저자가 글 중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저자의 개인적 체험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요 소재이고 저자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자리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루스 베네딕트나 나카네 지에 모두 ‘객관적’ 관찰자/분석자로서의 입장에 충실하고자 하지만, 노마 필드는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성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일본사회를 조망하며 ‘저자’와 ‘등장인물’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집중 분석되고 있는 것은 세 명의 일본인이지만, 노마 필드 자신이야 말로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그녀의 외갓집 가족들도 저마다 독특한 ‘조연’ 뒷을 하고 있다. 이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고도경제성장의 ‘기적’을 거쳐 세계 최고의 소비자본주의가 전개되는 일본, 다른 한편 현대 일본사회의 굴절에 괴이하게 얹힌 채 “천황이 죽어 가는 (그러나 동시에 죽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세기말 일본의 풍경이다.

##### 1. 노마 필드와 ‘경계 넘기’

현재 시카고 대학의 일본문학 전공 교수로 있는 노마 필드(Norma Field)는 미군의 일본 점령기 동안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서양 배우들의 사진을 복제해서 파는 것을 업으로 하게 되었던 외할아버지,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점령군으로 와 있던 미군과 결혼을 하게 된 어머니, 그 사이에서 소위 ‘워 베이비(war baby)’로 태어난 노마 필드는 일본현대사의 한 중요한 국면을 고스란히 몸에 각인하고 출생한 셈이다.

노마 필드의 성장과정 또한 경계에 위치하거나 서로 다른 집단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것이었다. 외가 쪽 식구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미군기지 “워싱턴 하이츠” 안에 있는 학교(이 곳은 일본 현지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점

---

11) Norma Field. 1991.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Pantheon Books.

령군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다)로 통학하던 유년기는, 일상적인 경계 넘기 (border-crossing) 체험이자 동시에 어느 한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준 것 같다. 그것은 “생일에 초대할 친구라곤 길 건너편의 육촌 형제들과 유일한 친구였던 옆집 아이뿐”인 생활이었다. 이후 노마 펠드의 아버지는 가족을 내버려둔 채 미국으로 혼자 귀국하고, 외갓집에 어머니와 함께 남겨진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교육을 받는다. 결국 일본전공자로서 미국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경력을 택함으로써 그녀는,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경계 넘기를 단순한 삶의 여정 차원에서 끌어내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시킨 셈이다. 일본과 미국 ‘사이(in-between)’에 존재하는 노마 펠드의 정체성은 태평양을 오가는 반복적인 여행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노마 펠드가 이렇게 책 서두에 위치 지우고 있는 자신의 자리는 차후 전개되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주변성’과 중첩되면서, 특히 하나의 ‘글쓰기 전략’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노마 펠드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가까운 외가 쪽 친척을 비롯해 이 책의 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및 그 주변인들은 모두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일본의 특수한 역사, 현대 일본사회의 특정 국면을 독특한 방식으로 각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마 펠드에 의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생생한 페르소나(persona)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글쓰기 전략은 일상적이고 친밀한 이야기를 통해 점점 광범위한 분석과 성찰로 연결되는 노마 펠드의 글에 대해 독자들로부터 보다 정서적인 몰입을 유도한다. 특히 세 명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위치하게 된 ‘주변성’으로 인해 중심부 일본사회의 억압성과 폐쇄성을 가장 핵심에서부터 증언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위치한 ‘주변성’은 그 근원이 침략주의적 전쟁과 억압적인 천황제에 있다는 데서 서로, 그리고 노마 펠드와 ‘조우’한다.

## 2. ‘천황이 죽어 가는’ 일본사회의 풍경

이 책은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이라는 한 시대의 마감 앞에 그 천황으로 상징되었던 일본현대사를 반추하고 성찰해 보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연구서에서 쉽사리 만나기 힘든 다양한 일본인들을 통해 노마 펠드가 보여주는 것은 20세기 끝자락에 선 일본사회의 모순과 억압성이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다. 이 책에 나타나는 모순과 억압성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영역, 즉 보다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띤 것과 좀 더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것이다. 전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 침략주의의 영향,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천황제를 둘러싼 금기 속에 언론의 자유가 공공연히 부정되는 상황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후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 일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욕망과 자기 규율, 그리고 일상적 희생 등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억압과 폐쇄성을 전쟁이 종결된 후 50년 이상 지난 역

사적 시점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적어도 이 책이 쓰였던 시점에선)라는 성취에 반사되어 더욱 모순적이고 뒤틀린 모습으로 다가온다.

노마 필드는 쇼와 천황의 사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동경에 있었다.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의 ‘프롤로그’는, 1988년 9월 히로히토 천황이 쓰러져 몇 달간의 투병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일본사회에 팽배했던 자기 규제(“자숙”)와 그 뒤를 잇는 장례 광경을 성찰한다. 투병에서 임종, 그리고 장례식에 이르는 전과정은 정교하게 조율되고 안무된 연출이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와 성찰, 그리하여 아직도 살아 맴도는 수많은 기억들을 역사로 안치시킬 수 있는 진지한 시도가 결여된 것이었다. 히로히토가 병상에 누운 것을 기해 다시금 떠올라 있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숙” 속에 침묵이 강요되었고, “일본 자본주의의 성공을 찬미하는 식전”으로 치러진 장례식을 통해 어물쩍 묻혀지고 있었다. “당신 죽지 말지어다, 아직은”이라고 외치는 것은 오직 식민제국의 가장(家長)이었던 천황에 의해 끌려왔다 베림받은 조선인 노동자의 후손인 여성 시인뿐이다. 이 책의 본문을 구성하는 3명의 일본인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부당하고 암묵적인 터부를 질문 없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체제순응이라는 ‘상식’을 거스른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보통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오키나와의 슈퍼마켓 주인 찌바나 쇼오이찌<sup>12)</sup>는 1987년 오키나와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민체육대회 경기장에 게양된 일장기를 끌어내려 태워버린 사람이다. 그가 이런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의 전개과정을 노마 필드는 일본 근현대사에서 오키나와 역사가 겪어온 특수한 행보 속에서 파악한다. 특히 이차대전 말기의 지상전을 통해 겪은 참담한 상처, 미군의 무기한 점령, 1972년 일본으로의 반환, 그 뒤로도 계속 강요되어 온 본토에 대한 종속과 열등감은 오키나와인들의 피해의식과 배신감을 증폭시켜 왔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 경험은 주류 일본인들에겐 줄곧 망각되어 왔으며, 일장기에 대한 공격은 이 망각되어 가는 역사에 대한 주변부 오키나와의 항거로 위치지워진다.

야마구치의 나까야 야스꼬의 이야기는 1988년 6월, 15년간 지속된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시작된다. 나까야 야스꼬의 남편은 자위대 복무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자위대는 죽은 남편의 위폐를 현(縣) 호국신사에 모시는 일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나까야 야스꼬는 종교적 권리 침해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 하였다. 15년을 끌어 온 지리한 재판 끝에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노마

12) 교육부가 정한 일본어 표기법을 따르면 ‘찌바나 쇼오이찌’는 ‘지바나 쇼이치’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를 번역 출판한 출판사는 교육부 표기법과 다른 독자적인 일본어 표기법을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히로히토’나 ‘오키나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일반화된 인명과 지명은 이 번역본의 표기와 달리 교육부 표기법에 따라 표기했으나 기타 다른 고유명사는 번역본의 표기를 그대로 인용해 쓰기로 하였다.

필드는 이 평범치 않은 한 미망인의 궤적을 현법에 명시된 전력불보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위를 자랑하는 군사력, 야스쿠니 신사의 공적 성격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 나아가 지난 한 세기 반에 걸쳐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과 성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연결시킨다.

나가사키의 모또시마 히또시 시장은 1988년 12월 시의회 답변을 통해 천황의 전쟁책임 ‘소신’을 밝혔다가 엄청난 협박과 공격에 휩싸이게 된 사람이다. 노마 필드의 표현을 빌면 “흠잡을 데 없는 보수파의 자격증명서가 붙은 정치가”가 “지극히 온건한” 입장에서 밝힌 자기 소신이 그를 일약 전국적인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고 자못 국제적인 인물로까지 부각시켰다. 풍분한 우익 단체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모또시마 히또시 시장을 협박하고 결국은 그 발언이 있고 일년도 넘은 시점에서 암살 미수 사건까지 일어난다. 그만큼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넘도록 속으로 끓어 오면서 일본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노마 필드는 결코 평범치 않은 사건을 일으킨 이 세 명의 “보통 일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강요된 집단적 망각의 여정이 결코 순탄할 수 없음을 환기시키며, 나아가 집단주의적 합의와 동의된 조화가 특히 주변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억압과 폐쇄성을 드러내 보인다.

이들 세 주인공 이야기 사이를 채우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에 대한 노마 필드의 성찰이다. 그것은 “일본형 성장”, “일본형 자본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반성이다. 노마 필드에 따르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을 대신한 새로운 동원체제’를 담보로 한 성장이었다. 초급단계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끊임없는 경쟁, ‘기업전사화’로 사생활의 반납을 요구하는 노동 시간, 주택난과 엄청난 생계비 등 일상적인 희생을 대가로 한 변영이었다는 것이다. 그 성장이 일본인 개개인에게 의미했던 것은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노마 필드의 이모와 이모부의 이야기 속에 놓축되어 나타난다. 한때, 지성과 교양을 겸비하고 우아하게 삶을 즐길 줄 알던 이 젊은 커플은, 고도성장기를 겪으며 ‘일본의 부활’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오로지 일에만 매진해 온 남편과 남편을 국가의 번영에 빼앗겼다는 피해망상증을 겪는 “고도성장의 색시”로 쇠락해 버렸다.

물론 성장이 희생만 강요한 것은 아니다. 희생에 대한 기막힌 보상품으로 풍요롭고 현란한 소비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노마 필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 일본에서 전개되는 소비는 성장에 의한 보상의 의미를 일찌감치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자기 규율이 되어 버렸고, 보다 중요하게는 위에 살펴본 집단적 억압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환각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서둘러 환기시킨다. 날마다 세련도를 더해 가는 환상적인 소비상품의 흥수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나 보이지 않는 억압에 대한 저항이 들어설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 결국 역사적 과오에 대한 편리한 망각은 화려한 소비생활의 유혹과 함께 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번영의 한가운데에서 자유가 달아난다고 외치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일뿐더러 직나라한 억압에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성찰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저항을 환기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이기에 위에 살펴본 세 명의 일본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노마 필드의 지지는 각별하다.

### 3.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읽기

노마 필드의 책은 분명 루스 베네딕트나 나카네 자에와는 또 다른 지적 환경 속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1980년대 이후 일본문화연구는 패러다임상 분명한 변화를 보여왔다. 그것은 ‘구조(structure)에서 행위자(actor, agency) 연구로’, 혹은 ‘구조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라고 특징 지울 수 있는 변화이다. 연구자들은 이제 일본문화에 존재하는 ‘구조’(유형, 원리, 규칙, 법칙, 혹은 모델) 그 자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구조’(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가 실제로 사회생활의 맥락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그 실천과정을 주도하는 행위자, 행위자들간, 혹은 ‘구조’와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에 주목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특정의 ‘구조’가 행위자에 의해 협상되고 구사되는 양상을 주요 연구영역으로 부각시킨다. 즉 과거의 일본연구들이 구조와 개인의 관계에서 이념적 구성물이나 제도적 축을 보다 강조하였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문화적 구성물과 사회적 실천 사이의 관계를 질문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탈역사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탈리즘적인 개념과 분석 틀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해 온 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지역연구에 나타나는 뚜렷한 경향 중의 하나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로 통칭되는 접근방식이다<sup>13)</sup>. 지식/권력의 문제와 지배/저항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한 축으로 하는 ‘문화연구’ 속에 문화상대주의, 일본문화의 독특성, 차이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일본문화의 정체(identity)가 상대화되었다. 아울러 방법론에 있어서도 분과학문에 근거한 연구 분야가 점차 약화되고 초분과학문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이 강조되면서 여러 분과학문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이론가를 인용하거나 공통의 용어와 개념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Tokita, 2000). 노마 필드의 경우 현재 구미학계에서 일본에 대한 ‘문화연구’ 분야에서 주도적인 인물 중의 하나이며, 그녀의 위치를 확고히 한 저작이 바로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이다. 그런 면에서도 이 책은 분명, 최근의 일본연구경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문화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13) 일본연구에 있어 ‘문화연구’의 본격 등장을 예고한 저작 중 하나가 미요시와 하루 투니언(Miyoshi and Harootunian, 1989)의 *Postmodernism and Japan*이었다.

이 책의 분석에 있어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노마 필드가 이 책을 통해 살려 내는 수많은 인물들이다. 위에 언급한 세 명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노마 필드 자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나가사키의 이모 부부, 점령시 일본서 태어난 미국아이들, 요미딴 촌의 야마우찌 촌장 등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로서 노마 필드가 조망하는 일본현대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살아난다. 아울러 특정의 사회적 사건을 하나의 사회적 텍스트로 분석해 내는 방법<sup>14)</sup>을 통해, 일반화된 ‘일본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인간사의 ‘결’을 드러내 주는 솜씨도 훌륭하다. 이러한 모든 시도는 루스 베네딕트나 나카네 지에와 달리, 노마 필드가 관심을 기울인 것이 일본문화의 ‘모델’이나 ‘법칙’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모델’이나 ‘법칙’을 실천하는 (혹은 저항하거나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V. 나오며

어느 문화가 되었건 그 문화를 파악하는 하나의 ‘전지전능한 눈’은 있을 수 없다. 위에서 살펴 본 세 가지 텍스트가 일본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렌즈였다면, 그것은 각 학자의 개인적·학문적 배경, 속해 있던 시대적 상황에 의해 특수하게 굴절된 렌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그 ‘굴절’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각 렌즈가 가진 특수성을 좀 더 뚜렷이 부각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서로 연결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학자가 출발하는 인식론·방법론적 배경은 매우 상이하다. 미국의 문화인류학 전통, 특히 1930~40년대 ‘문화와 인성’ 학파에 속해 있던 베네딕트에 있어선 인간행위의 심리적 동인에 대한 탐구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개념은 심리학적 냄새가 짙게 배인, 하나의 ‘캐슈탈트’로서의 문화였다. 반면 나카네 지에는 영국적인 사회인류학 전통에서 훈련받았으며, 보다 사회학적인 ‘구조’와 ‘관계망’을 일본을 분석하는 주요 개념적 틀로 사용하고 있다. 노마 필드는 문학에서 출발하여 문학연구로 관심이 확대된 경우로, 개인사나 소수의 심층적으로 분석된 사례사를 가지고 전체 사회를 조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일본문화를 분석해 감에 있어 루스 베네딕트의 핵심개념은 ‘유형’이며, 그것은 『국화와 칼』의 부제인 “일본문화의 유형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카네 지에는 ‘구조’란 개념으로 일본인들의 행동을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14) 세 명의 ‘주인공’에 대한 노마 필드의 분석은 ‘확대된 사회적 사건(extended social event)’을 하나의 ‘사회적 드라마(social drama)’로 분석해 냈던 빅터 터너(Victor Turner, 1974)의 작업이나, 발리의 닭싸움 분석으로 대표되는 클리포드 기어츠의 ‘심층 놀이(deep play)’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Geertz, 1972).

베네딕트의 ‘유형’이나 나카네 지에의 ‘구조’ 분석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개입될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노마 필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체제의 관리와 규율에서 벗어난, 혹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개인의 자율성이다. ‘유형’이나 ‘구조’가 아니라 ‘실천’과 ‘행위자’를 중시하는 노마 필드는 역으로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경험을 통해 일본사회의 구조적 힘의 성격과 행사방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카네 지에가 “사회구조”에 치중한 반면 베네딕트는 (다분히 심리학적인) “문화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접근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전체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었고, 언급한대로 이러한 모델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 일본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분석틀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세 가지 관점이 갖는 설명력의 차이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흔히 이야기되는 일본적 집단주의, 집단 내부의 파벌, 조직에 대한 충성 등을 설명하는 데는 나카네 지에의 분석이 매우 설득력을 지니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의 ‘에토스’, 즉 정서적 동기화, 세계관, 가치관, 규범적 강제 등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자 모두 개인행위의 출발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선, 특히 집단적 기대나 규칙에 어긋나는 사례나 그 원인에 대해선 설명하기 곤란하며, 이 부분에선 노마 필드의 관점이 갖는 장점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일본연구가 루스 베네딕트와 나카네 지에를 거치면서 자각하게 된 것은 ‘문화’가 일종의 하부구조로 여겨질 경우 ‘역사’와 ‘개인의 실천’ 등은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것이며, 이런 측면을 보완해 주는 글이 바로 노마 필드의 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문화가 분석틀로서 전적으로 쓸모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반대로 문화란 어디든지 존재하며 인간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대답은 결국 문화인 경우도 많다. 다만 그것이 다른 다양성과 갈등, 변화를 무시하고 본질화 혹은 중립화시키는 개념으로 쓰인다면 심각한 인식상의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바로 그 문화적 차이가 생산되고 재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 « 참 고 문 헌 »

- 권숙인. 2000. 「미국의 일본연구: 일본문화·사회연구의 최근 동향」. 서울대국제 지역원 일본자료센터 연구보고서.
- 김윤식·오인석 역. 1991.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 Benedict, Ruth.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Houghton and Mifflin.
- 문옥표. 2002. 「일본사회의 조직과 개인: 임의결사를 중심으로」. 한경구·이토 아비토 공편. 『한일 사회조직의 비교』. 아연출판부. pp.9-36.

- 박이엽 역. 1995. 『죽어 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창작과 비평사. Field, Norma. 1991.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New York: Pantheon Books.
- 손 열. 1998. 「미국의 20세기와 일본연구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4호. pp.121-150.
- 양현혜 역. 1996. 『일본사회와 인간관계』. 도서출판 소화. 中根千枝. 1967. 『タテ  
社会の人間關係: 單一社會の理論』. 講談社.
- 이관기 역. 1999. 『일본인론』. 도서출판 소화. 南 博. 1994. 『日本人論』. 岩波書店.
- 최경국 역. 1997. 『일본문화론의 변용』. 도서출판 소화. 青木 保. 1990. 『日本  
文化論'의 變容』. 中央公論社.
- 米山俊直. 1976. 『日本人の仲間意識』. 講談社.
- ハルミ ベフ. 1987.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日本文化論』. 東京: 思想の科學社.
- Befu, Harumi. 2001. *Hegemony of Homogeneity*. Melbourne: Trans Pacific Press.
- Benedict, Ruth. 1934. *Patterns of Culture*. New York: Houghton Mifflin.
- Dower, John.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 Geertz, Clifford. 1972. "Deep Play."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Inc. pp.412-453.
- \_\_\_\_\_. 1988. "Us/Not-us: Benedict's Travels." *Works and Lives: The Anthropologist as Author*.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pp.102-128.
- Kelly, William. 1991. "Directions on the Anthropology of Contemporary Japa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0.
- Kent, Paul. 2000. "The Consummate Cultural Relativist?: Ruth Benedict's Approach to Japan." *Re-Mapping Japanese Culture*.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pp.61-86.
- Lummis, Douglas. 1982. *A New Look a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Tokyo: Shohakusha.
- Mackie, Vera, et. al. eds. 2000. *Re-mapping Japanese Culture*.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 Mouer, Ross and Yoshio Sugimoto. 1986. *Images of Japanese Society*.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 Miyoshi M. and Harry Harootunian, eds. 1989. *Postmodernism and Japan*. Durham: Duke Univ. Press.
-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ugimoto, Yoshio, 2000. "Cultural Relativism against Cultural Relativism." *Re-Mapping Japanese Culture*.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pp.87-102.
- Tokita, Allison. 2000. "Introduction." *Re-mapping Japanese Culture*. Clayton, Australia: Monash Asia Institute.
- Turner, Victor. 1974. *Drama, Fields, and Metaphors*. Ithaca: Cornell Univ. Press.

## Three ‘Eyes’ to Japanese Culture: Ruth Benedict, Chie Nakane, and Norma Field

**Kweon Sug-In**

*Assistanc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compares and contrasts works by Ruth Benedict, Chie Nakane, and Norma Field on Japanese culture. Belonging to different time periods, they have affected Japanese studies in significant ways. The three scholars, however, diverge from each other in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s, and, in a sense, provide ‘three different eyes(perspectives)’ to Japanese culture.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by Ruth Benedict, *The Japanese Society* by Chie Nakane, and *In the Realm of a Dying Emperor* by Norma Field are thus analyzed for comparison. Major contras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core member of the Culture and Personality School of American cultural anthropology, Benedict pursues psychological motives underlying distinct behaviors of the Japanese people. Nakane, trained in the tradition of British social anthropology, relies heavily on the concepts of structure and social network in her analysis. Coming from Japanese literature criticism, Field applies a sort of ‘text analysis’ to a few extended cases in order to reflect on the larger society.

Second, for Benedict and Nakane, key concepts for examining Japanese culture are ‘patterns’ and ‘structur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re is little space for individual autonomies in their analysis. Field,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practices and agencies, and tries to illustrate natures and forces of the social structure.

Third, as for the relative explanatory power, Nakane’s framework is very effective in clarifying the so-called Japanese groupism, in-group factions, and loyalties to the group. Benedict provides very keen insights into the ethos (motivations, world views, values, and moral restrictions, and so forth) of the Japanese. However, both are inept in incorporating cases diverging from group expectations and rules, and Field shows invaluable insight in this regard.